문화광장

양 건

건축학 박사·가우건축대표

제주의 경관 관리계획에서 '서사적 풍경'은 사라졌는가

맹위를 떨치던 한여름의 끝자락에, 십여 년 전 제주경관 관리계획 용역의 책임 연구원이셨던 원로 건축가와 자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 모처럼 지난 시간을 기억하며 최근의 제주 경관 관리에 대해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지난 2009년 고시된 '제주경관 관리계획'은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 관리 지침서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관을 이해하고 관리 계획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원론적 개념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서사적 풍경의 구축'이란 제주경관의 목표가 위치한다. 이 계획이 발표될 당시 행정부서에서는 경관 관리를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서사적 풍경'의 의미를 풀어보면 땅에 대한 존중의 태도와 그 위에 적층되어 있는 시간성을 드러내어 하나의 풍경으로 끌어올리려는 진중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운용하는 행정이나 제주 지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사적 풍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분분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건축을 전공하신 모 교수께서는 스토리텔링이라 오해하시는 분도 계셨다.

서사적 풍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연구진이 인용했던 존 버거(John Peter Berger, 1926-2017)의 '본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본다는 행위에는 단순히 빛이 망막을 통해 시신경으로 전달되는 물리적 시각과 더불어 사회적 의미를 파헤치는 시각의 재검토 과정이 동반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보는 주체'와 '보이는 객체' 간의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고 주·객체의 일체화가 곧 '본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다.

존 버거의 이론으로 서사적 풍경을 설명하는데 '알뜨르 비행장'의 예는 효과적이다. 수평의 경작지와 산방산이 어우러진 경관은 제주의 대표적인 수려한 풍경이지만, 이 장소에는 일본군 격납고의 유적에서 유추되는 태평양 전쟁과 '백조일손지 묘'의 아픈 역사 등이 쌓여있는 서사가 있다. 이때 본다는 것은 아름다운 풍광을 망막으로 받아들이는 일차적 시각에 더하여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하는 이차적 인지를 의미하며, 그 과정 중에 장소와 보는 행위자가 관계맺음을 통해 하나의 풍경으로 작동될 때 이를 '서사적 풍경'이라 하는 것이다.

제주의 경관 계획에 '서사적 풍경'이 등장한 지 십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의미를 명확히 공감하지 못하고 보존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다. 서사적 풍경은 자연환경 외에 겹쳐진 인문환경까지 통합하여 경관의 범주에 놓는 것이며 자연을 동시대의 삶과 유리된 대상으로 놓자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의 경관 관리는 서사적 풍경이란 목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온다. 2018년 말에 행해졌던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설계 국제공모'의 설계가 도전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보존에 보수적인 각종 심의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서사적 풍경의 구축이라는 제주경관관리 계획의 행보에 가치 있는 실험대가 될 듯하다.

사설

국비 확보 하수처리장 주민의견 반영돼야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국비 지원 규모가 총 사업비의 50% 선으로 확정되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하수처리장 현대화 관련 총 사업비 3886억 원 중 원인자 부담금 156억 원을 제외한 재정투자액의 50%인 1865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착공, 2025년까지 1일 하수처리량을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 결정으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전액 국비 지원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철도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인데 반해 제주도에 대한 지원액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2000억 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다른 하수처리장 증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1일 가동률이 서부처리장 99.34%를 비롯 색달 95.81%, 대정 94.06%로 포화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 작업도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 필요성이 높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정당성 확보는 물론 추진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가는 절차적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주도가 당위성만 내세운채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더 큰 난관이 우려됩니다. 주민 반발을 해소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쥐떼로 몸살 앓고 있는 천연기념물 사수도

1982년부터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사수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흑비둘기와 습새의 번식지로 알려진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사수도'는 우리에게 '영토분쟁'의 상징으로도 잘 알려진 섬입니다. 지난 2005년 당시 북제주군과 전남 완도군이 관할권을 놓고 헌법재판소까지 가면서 법적 분쟁을 벌여온 섬입니다.

생태계의 보고이자 제주도민들에게는 조기와 참치 등의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이 섬에 최근 쥐떼가 극성을 부리면서 텃새인 흑비둘기와 여름철새인 습새의 서식지가 사라질 위기라고 합니다. 추자도에서 약 20㎞ 정도 떨어진 사수도가 낚시꾼의 주요 포인트로 각광을 받으면서 낚싯배에 쥐떼가 함께 들어가 급속하게 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쥐떼들은 습새의 둥지를 습격해 알이나 새끼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의 모니터링 연구결과 습격을 받은 28개 둥지 중 8개 둥지는 집쥐에 의한 직접적인 포식증거가 확인됐고 나머지 20개 둥지는 알이나 새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재 사수도에는 집쥐 100개체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상태대로 방치할 경우 환경에 따라 1000여마리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수도의 현재는 우리 인간들의 자연 파괴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낚시의 즐거움에 사수도를 찾았지만 인간의 발길은 사수도의 먹이사슬을 파괴하고 습새와 흑비둘기의 번식지라는 생태환경을 무참히 훼손해 버렸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더 이상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배의 접안 등을 금지하고 습새와 흑비둘기 서식지 보호를 위한 대책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집쥐 박멸에도 적극 나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열린마당

재미있는 물놀이를 위한 안전수칙 체크

진 원 기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요즘 날씨가 덥다 못해 가마솥에 들어온 느낌이 들게 한다. 이런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물이 있는 곳을 찾곤 한다. 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마음은 무거워질 것이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가장 먼저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몸을 풀어야 한다. 스트레칭은 길면 길수록 좋다. 온몸에 근육을 조금씩 풀어주고 긴장을 시켜줘야 한다. 갑자기 무리하게 근육을 써버리면 근육 경련 또는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관절부위도 같이 풀어줘야 한다. 관절부위의 인대도 같은 원인으로 손상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에서의 사고는 음주로 인한 사고도 많다. 자신이 음주를 한 상태라면 물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뿐더러 혈관이 확장되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해 저체온증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리고 익수 환자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최단시간에 구조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고 발생 시 1분, 1초라도 줄일 수 있는 구조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중 하나의 방법은 미리 안전요원, 인명구조함의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다. 아무리 급박하다고해도 자신이 무리하게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튜브나 긴 옷, 주변 도구를 이용해 구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위 사항들은 물놀이를 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 안전사고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언제 어디서든 일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안전은 스스로가 먼저 챙겨야 하며 소중한 인명이 사라지는 경우가 없길 깊이 바라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쓰레기 사태 담당 국·과장 언론기피 '빈축'

JTP 원장 전국 공모

○…제주테크노파크(JTP)는 오는 9월 3일까지 15일간 허영호 원장에 이은 제4대 신임 원장을 전국 공모한다고 19일 공고.

이날 추천위원장 명의로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응모자격과 함께 이번에 추천되는 신임 원장은 3년 임기가 2년으로 줄어드는 대신 2년 이내에 한해 임기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

신임 원장 접수가 마감되면 9월 둘째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복수 후보를 추천하게 되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1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승인으로 오는 11월 1일 취임할 예정. 조상윤기자

18일 하루종일 연락 무응답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반입 전면 금지를 앞두고 제주시 담당 국·과장들이 언론과의 연락을 차단해 빈축.

19일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 전면 금지를 앞두고 18일 시청출입기자들이 수회에 걸쳐 담당 국·과장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하루종일 무응답으로 일관.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며 이해를 구했으나 출입기자들은 "도민들에게 대책을 알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무책임한 국·과장들은 보지 못했다"고 성토. 고대로기자

학교현장 수능 지원 당부

○…제주도교육청이 이달 22일부터 9월 6일까지 2020학년도 대입 수능 원서를 접수하는 가운데 이석문 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충실한 지원을 당부.

이 교육감은 19일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았고 이번 주부터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수능 준비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언급.

이 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수능 준비와 더불어 아이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 진선희기자

부 고

강영제(前 국립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박사) 아버지 진주강공 종표(안토니오·국가유공자·향년 87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19일 08시 5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8월 20일(화)
▶발인일시: 2019년 8월 21일(수) (장례미사) 오전 10시
▶빈 소: 천주교 광양성당 지하
▶장 지: 황사평 천주교 공동묘지

부 인 임정희(도니다)
아 들 강영제(도마) 며느리 정명희(아드리아나)
손 자 강형석(빈첸시오)
손 녀 강문정(쁘리세다) 손 서 문 철(토마스A)
리나(카타리나)

※ 연락처 : 강영제 010-3694-8225
정명희 010-3691-1025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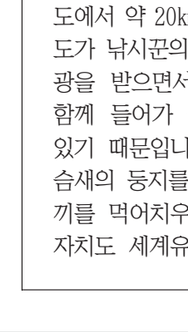
1. 당 회사는 2019년 8월 12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을 400,000,000원에서 35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50,000,000원으로 한다.
2. 발행주식의 총수는 40,000주에서 35,000주를 감소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주로 한다.
3. 자본 감소 방법은 1주의 금액 10,000원으로 하며 감소할 주식 35,000주는 2019년 7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주식수 비례로 무상 소각한다.
4. 위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당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구주권을 가진 주주들은 당 회사에 구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구주권 및 이의 제출기간 : 2019년 8월 20일부터 2019년 9월 21일까지

2019년 8월 20일

주식회사 에이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안로 216, 지하1층(도두일동)
사내이사 현 승 남

황금향 판매
당도 탁월, 산도 적음 껍질 잘 벗겨짐
생산자 직거래, 택배비 포함
5k(25개~35개) 4만원
10k(50개~70개) 7만원
문의 오문식 010-3696-3933 (도매도 가능합니다.)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가 大勢(대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원년부터 14회, 제주지역 '최다' 기록
도내 언론사 최초 'GD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8년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